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1년 벼 병해충 피해 재해복구비 신속 집행

부안군은 지난해 8~10월 발생한 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재해복구비를 신속 집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피해농가에 국비를 포함한 60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한 재난등급별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로 부안지역은 2884농가 7716ha가 해당된다.

군은 1차로 224농가에 55억원(국비 35억원·지방비 20억원)을 지난 3일 지급했으며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주생계수단 소득금액 소명대상 200농가 5억원(국고 3억원·지방비 2억원)은 오는 18일까지 소명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가축분뇨·축산 악취 지도 점검 총력

고창군이 환경오염행위, 가축분뇨 부적정관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시설 사업장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7건 등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했다.

올해도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야적 등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결과 기록·보관 및 준수 등을 점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정읍시, 전북도 주관 6년 연속 인정받아 기관 표창·2500만원 인센티브 획득

정읍시가 전라북도 내 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전북도가 주관한 2021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결실을 얻었다.

이로써 시는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투자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북도 기관 표창과 함께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움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 실적 등 16개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기업으로 해소 전담 창구 설치와 현장 기동반 운영, 지역 내 기업 동향 파악과 기업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이행실적에서 도내 최고 득점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환경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체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송부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 맵과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로 기업과의 소통창구인 기업지원 알림국을 개설해 기업인들에게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동향 등의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기후 온난화와 하천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은어 우량종을 하천에 대거 방류했다.

## 추령천에 은어 우량종 5만미 방류

정읍시, 생태계 보호·산업적 발전 유도 '일석이조'

정읍시가 기후 온난화와 하천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은어 우량종을 하천에 대거 방류했다.

전북도와 시 관계자들은 8일 산내면 매죽리에 자리한 육정호 상류 추령천에 은어 치어 5만미를 방류했다.

방류한 은어 치어는 전북도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직접 생산·공급 우리 고유 토종 어종으로 배 쪽에 은빛이 반짝인다고 '은광어'라고도 불린다.

가을에 수정·부화해 바다로 내려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4월경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하천의 상류에 서식하는 단년생 어종이다.

칼슘과 철분,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건강식품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기의 맛이 담백할 뿐 아니라

특유의 수박 향이 있어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는 지속적인 은어 방류로 자원량을 증가시켜 체험 관광과 낚시, 먹거리 등 다양한 산업적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전국적으로 관광 명소인 구절초 테마공원과 연계해 자연 생태 학습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특산품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태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수원 내 토산 어종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방어와 동자게 치어 32만마리를 입양제 등 저수지와 주요 지방하천에 방류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청보리밭축제, 202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

고창군, 생태관광축제로 우뚝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대한민국 생태관광축제 대표브랜드로 우뚝섰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최근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2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생태관광축제 부문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와 동업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시상이다.

올해로 18년의 역사를 지닌 '청보리밭축제'는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 약 100만㎡의 땅에서 열린다. 2003년 처음 개최한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대한민국 생태관광축제 대표브랜드로 우뚝섰다.

이래로 해마다 국내 각지에서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 보리피리 불기, 민속놀이 등의 체험 행사와 예술공연, 보리 음식 및보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31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총상금 300만원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편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에 해당된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나 기

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받아 전자우편(jbi125@koreakr)이나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성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

규제심사위원회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과제 선정 대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최우수 50만원(1건), 우수 각 30만원(3건), 장려 각 10만원(16건) 등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생활 속 불편과 기업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

부안군은 전북도가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에 부안군 지역혁신형 문화관광 창업지원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억원의 90%인 도비 9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과 전주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부안군이 지닌 문화관광을 접목하고 나아가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를 연계해 새로운 창업아이템 발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내달부터 참여

자 10명을 모집해 6명의 창업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업자들의 휴·폐업이 잦은 요즘 부안이 가진 자연·문화적 요소 및 지역적 산업 여건을 활용해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내실 있는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